

“해양오염 막아 녹색성장 이끌자”

■ 12일 ‘여수선언’ 무엇이 담길까

지속가능 해양개발에 정책 최우선

세계 각국이 지속가능한 해양 개발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낸다. 쓰러기의 해양 유입, 바다 서식지 파괴, 해양산성화, 기후변, 해수면 상승을 위협받고 있는 바다를 살리기 위해 여수세계박람회를 폐막식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한다.

해양오염 등으로 위협에 직면해 있고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의 문제가 인류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국제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바다로부터의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 해양 개발을 위해 논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 9가지의 목표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담고 있다.

9가지 선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국 정책입안자와 국제기구가 바다와 관련된 이슈들을 글로벌 정책 대상에 우선순위를 설정 ▲해양 환경보호와 관련 교육 확대 ▲해적 행위, 비합법적 행위 근절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노력 ▲세계 해양자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생태계에 기반한 관리제도’ 시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폐막을 4일 남겨두고 폐막식 당일 발표될 ‘여수선언’에는 세계 각국이 해양과 관련된 이슈를 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입안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양 오염을 최소화하고 바다로부터의 녹색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류의 다짐을 담고 있다.

박람회 조직위는 7일 “현재 여수선언 초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막바지 수정 중이며, 폐막식이 열리는 오는 12일 여수선언포럼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각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된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해양, 지역해, 연안, 해저, 섬들이 과도한 어업행위와 자원개발,

또 ▲쓰나미 등 자연재해 자료의 실시간 제공이 가능한 전지구해양관측시스템 확장 ▲신재생에너지 등 해양자원 이용하는 녹색경제 실현 ▲‘바다로부터의 녹색성장’ 개발 방법



여수엑스포 폐막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온 7일 오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업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장사진을 이룬 채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막바지 관람인파

을 작은 나라 및 개발도상국과 공유 ▲개발도상국에 해양 환경문제를 지원하는 ‘여수프로젝트’ ▲정부와 시민사회가 해양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합심해 줄 것 등을 선언한다.

아울러 여수선언이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선언’(1972년), ‘환경보

호에 관한 나이로비 선언’(1982),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선언’(2002), ‘RIO+20컨퍼런스’(2012)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선언은 50여명의 해양 전문가들이 참가했고 20명의 국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검토위원회에서

작성됐다. 박람회 조직위가 여수선언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여수선언 지지서명에는 7일 현재 5만여명이 참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여수시민 특별관람권 발매

10일까지 신분증 있으면 3000원

11·12일 추첨통해 항공권 등 제공

여수세계박람회 폐막을 나을 앞두고 여수시민들을 대상으로 특별관람권이 발매된다.

7일 조직위와 여수시에 따르면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여수시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 기간동안 여수시민들은 3000원에 판매되는 지자체 특별권을 구매해 박람회장을 자율 관람할 수 있다.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박람회장 게이트(정문·1·2·3문) 매표소에서 여수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시하면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은 가능하나 한국관, 주제관 등 주요 전시관 사전예약은 안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박람회 기간 많은 회생을 감내해온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30만 여수시민 모두가 참여하면 박람회 목표 관람객 800만 명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와 조직위는 관람객 800만명 입장을 기념하는 경품행사를 마련했다.

관람객 800만명 돌파가 예상되는 오는 11일과 12일 입장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2명(동반 각 1명)에게 4박5일간의 2015말라노엑스포 입장권과 왕복 항공권, 체류비 등을 제공한다.

특별권으로는 1일 1회 재입장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박람회 결산 다양한 학술행사

박람회개최도시연합 총회·심포지엄

‘해양과 인문학’ 주제 국제 심포지엄

바다를 주제로 한 여수세계박람회를 결산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다양한 학술행사가 열린다.

먼저, 세계박람회를 개최했던 각국 대표들이 여수에 모여 박람회의 발전과 해양 보존 등을 논의한다.

여수시는 ““박람회개최도시연합(AVE) 총회 및 심포지엄”이 오는 10일 여수 엠블호텔에서 여수시와 BIE(세계박람회기구) 등의 공동 주최로 열린다”고 7일 밝혔다.

행사 주관은 여수시와 전남발전연구원 이 맡는다.

이번 총회는 2002년 스페인 세비아 AVE 창립총회 이후 5번째 총회로 여수시, 독일 하노버시, 일본 아이치시, 대전시, 중국 상하이시, 2015년 박람회 개최도시인 이탈리아 밀라노시 등 36개 도시 대표단 40여명이 참가하게 된다.

또 김충서 여수시장이 상하이 시장의 뒤를 이어 AVE 의장직을 인계받고, 박람회와 회원도시 간 발전과 교류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포지엄 주제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다. 칼 슈미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산정책국장, 정병재 여수부시장이 기조발표를 한다.

또 ‘도시발전’과 ‘해양’을 소주제로 양승찬 대전시 과학문화산업본부장, 베르드 스트라우치 독일 하노버 시장, 요코에 타카히로 일본 아이치현 상해사무소장, 에릭 애틀러 국제연합 산하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동아시아해 조정기구 사무국장,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 연구실장 등이 주제발표를 한다.

심포지엄 폐막 후 AVE 신임의장인 김충서 여수시장이 여수박람회의 의의와 정신을 세계에 전하는 ‘여수메시지’도 발표한다.

세계 최초로 해양 인문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국제심포지엄도 열린다. 9일 오후 2시 여수엑스포 국제관 0동 컨퍼런스홀에서 ‘해양과 인문학’

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인문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대거 참석한다.

캐나다 칼튼 대학의 존 두얼리교수가 ‘해양과 영혼의 고향’을 주제 발표하고, 노르웨이 기술대학의 헤이데레강저-크로그스타드 교수가 ‘탐험과 바이킹’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인도 드나나 디파 디드아피스대학의 잠 코즈함다담 총장이 ‘해양 돌봄 그리고 건강’을 주제로 발표하고, 일본 난잔대학의 아키라고토 교수는 ‘해양의 경치와 일본의 군도’에 대해 들려준다.

이 밖에도 서강대 사학과와 도널드 벨로미 교수가 ‘역사적 관점에서의 해양과 대륙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종합토론은 서강대 종교학과 김재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원광대학교 마을인문학연구소 한내창 소장과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연구소 심연수 소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오늘의 여수엑스포

- 인디밴드들의 길거리 공연이 한낮 박람회장의 열기를 식혀준다. 오늘은 ‘카피머신’이 초대됐다. 쥘다이(보컬)와 임준규(기타) 등이 흥겨운 사운드를 들려준다.
- △인디밴드 카피머신 공연(해양광장·오후2시 30분)
- △국가의날-탄자니아(엑스포홀·오전 10시)
- △사과가 흥(천막극장·오전 10시20분)
- △특별협연 연희단팔산대 여민락(스카이다워·오후 2시)
- △샌드메지컬(천막극장·오후 2시)
- △액션드라마여수(천막극장·오후 6시)
- △해상쇼(해양광장·오후 2시30분)
- △팝페스티벌-김경호(특설무대·오후 8시)
- △빅오쇼(해상무대·밤 8시50분)

△어제의 관람객 수=10만1375명(7일 오후 6시 현재)
△누적관람객 수=713만7929명

2012 CONCERT 아직도 못다한 노래...

남진

아직도 못다한 노래...

2012. 9. 22(토) 오후3시,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 최 | 광주일보, 광주MBC | 주 관 | 문커뮤니케이션 | 제 작 | 이나이스엔터테인먼트
| 예매처 | 인터파크, 티켓링크 | 문 의 | 220-0541 · 1600-4534
| 티켓가격 | VIP석 99,000원, R석 88,000원, S석 77,000원, A석 66,000원

빛의만평

- 김중두



이런 건 풀찌 해도 되는데 ...